

부산·창원 첫 얼음 관측(12.8.)

- 작년보다 20일, 평년보다 14일 늦어-

오늘 아침 부산·울산·경남 대부분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,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여 부산·창원 등은 울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분포를 기록하였다.

【 부산·울산·경남 주요지점 12월 8일 아침최저기온 (단위: °C) 】

부산*	울산*	창원*	통영*	거제	남해	밀양	진주	거창
1.2	-0.3	0.9	0.6	2.6	2.2	-1.7	-1.4	-3.1

* 울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기록 지점

※ 아침최저기온: 03:01~09:00 가장 낮은 기온값

오늘 부산 아침최저기온은 1.2°C(최저초상온도 -3.1°C), 창원 아침최저기온은 0.9°C(최저초상온도 -3.5°C)를 기록하면서 첫 얼음이 관측되었다. 이는 작년(2023년)보다 20일, 평년보다는 14일 늦은 기록이다.

【 부산·창원 첫 얼음 관측 현황 】

구분	첫 얼음	작년 비교	평년 비교	일최저기온	최저초상온도
부산	12.8.	20일 늦음	14일 늦음	1.2°C	-3.1°C
창원	12.8.	20일 늦음	14일 늦음	0.9°C	-3.5°C

※ 최저초상온도: 지면에 접해있는 풀잎 위의 온도자료 중 최저값

담당 부서	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박종찬 (051-718-0550)
		담당자	주무관	박지완 (051-718-0435)



부산기상관측소(12.8.)



창원기상대(12.8.)